

아버지에 대한 단상(斷想)

최기형 교감선생님



〈아버지의 지게〉 현용안 그림

10년 전 막 잠에서 깬 새벽,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지금도 생생하다.

“애비야, 네 아버지가 이상하다. 말도 못하고…, 돌아가시려는가 보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전날 저녁에도 멀쩡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 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언뜻, ‘내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아버지께 ‘갚지 못한 빚’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런데 살아계실 적에는 무관심했던 아버지의 존재감이 돌아가신 후에 언제부터인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어쩌면 이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라도 이야기로 풀어내면 아버지에 대한 ‘빚’을 갚고 면죄부를 얻을까 하는 이기심인지도 모른다.

하나, 아버지의 지게

아버지는 늘 커다란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반쯤 수그린 모습으로 떠오른다. 대문을 나설 때는 지게 위에 쟁기나 씨레가 놓여 있고, 추수철에는 곡식단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는 나뭇단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쌓여 있다. 달구지와 지게가 운송수단이던 시절, 중학교때 객지생활을 위한 이불보따리며 하숙비로 매달 지불하였던 ‘짚자루’가 아버지의 지게에 실려 시오릿길을 간 후에 버스에 옮겨서 읍내 하숙집까지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 고된 농사일을 하시며 덩으로 지게에 무거운 짐을 져 나르는 일을 하셨다. 먹고 사는 일보다도 자식교육을 위해 지게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년의 아버지는 키가 장신이었지만, 허리가 굽고 어깨가 좁아든 모습으로 남아 있다. 지게를 떠올리면 아버지가 감내한 고통이 생생하건만, 왜 아버지의 생전에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 이해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하는 후회가 든다.

둘, 아버지의 바지

요즘 비싼 ‘대학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물며 3,40년 전에 농사를 지어 등록금과 하숙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더구나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학창시

절 ‘부모님 전(前) 상서(上書)’를 참 많이 썼다. 한 달에 두 번 쓴다. 한 번은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하숙비와 용돈이 필요하오니…”이고, 한 번은 “보내주신 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가끔은 연락도 없이 불쑥 시골집에 갈 때가 있다. 물론 전화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부모님께서서는 돈을 준비할 여유가 없으셨음에 틀림없었다. 대개는 토요일 저녁에 왔다가 일요일 아침 먹고 집을 나서야 하니,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겠는가? 일요일 아침 밥상을 대할 때쯤 아버지께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 때 아버지의 바지가 반쯤 이슬로 젖어 있었다. 돈을 빌리려고 새벽에 온 동네를 다니셨던 것이다. “나는 고향에 가면 절대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술자리에서 가끔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많은 고향분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그 분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치에서다. 이슬에 젖은 아버지의 바지는 그렇게 아버지를 넘어 고향에 대한 빚으로 남아 있다.

셋, 아버지의 등

열 살 때, 겨울날 저녁 무렵이었다. 동네 야산에서 아이들과 나무에 올라가 놀다가 꽤 높은 곳에서 그만 떨어졌다.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오른팔이 완전히 부러지고 말았다. 집에 돌아오니 날은 어두워졌고, 이웃 마을 친척집에 가셨던 부모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나를 등에 업고 어머니는 호롱불을 들고 2십리(8km)를 걸어 나가 검문소에서 세워준 급행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으로 갔다.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엑스레이를 찍고 기브스를 해서 부러진 팔을 치료해서 평생 장애를 겪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날 밤 팔이 부러진 채로 두 세 시간 엮혀 있었던 ‘아버지의 등’은 두려움과 아픔을 잊게 하는 참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전에 목욕탕에 함께 간 적이 없어 그 ‘등’을 한 번도 밀어드리지 못하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 하곤 한다.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과학적 근거를 지닌 말이라고 덧붙인다. 단순한 외양적 특성보다 성격이나 질병과 관련한 유전적 요인을 보며 ‘내 모습’을 발견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덩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다. 돌아가신 뒤에,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후회한들 무엇하겠는가? ‘나를 잊게 한 아버지’의 손 한 번 잡아드리고, 등 한 번 밀어드리며, 한 두 시간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